

예술은 예술이다

전일광장

정상연전남과학대
겸임교수
문화학박사



“여러분은 예술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음악을 전공하는 20여명의 학생들에게 필자가 물었다. “예술은 인생입니다.”, “예술은 영원한 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등 뻔한 질문에 재치있는 현답들로 대화가 쌓였다. 과연 ‘예술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고 예술과 철학적 관념에 대한 개념 인식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생각하는 예술은 인간의 수많은 활동 중에 가장 빛나는 창조 행위이며 영적 활동이라 믿는다. 형상화되는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인위적 수고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의 정서와 가치를 전달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다. 그래서 톨스토이(L. Tolstoy, 1828~1910)는 ‘예술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술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것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술을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오용(誤用)해서 도 안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어지는

것도 없다.

중세 이후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앞서 실제적 존재, 즉 그 작품으로 인정받고 오늘날까지도 찬란한 빛을 발현하고 있음이다. 이를테면 14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혁신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가 <최후의 만찬>을, 또 한 명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1475~1564)는 <피에타>를 제작했으며, 라파엘로(1483~1520)가 <아테네 학당>을 인류의 유산으로 남겼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이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80억 세계인구 중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순수한 예술적 행위와 위대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시대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정형화된 형식미가 돋보였던 고전주의 시대 천재 음악가들을 살펴보면, 교향곡을 106곡이나 작곡해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1732~1809)과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무려 626편에 이르는 작품을 남긴 모차르트(1756~1791),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베토벤(1770~1827) 등을 언급할 때도 정치적인 추를 좌, 우로 나누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발레 작품으

로 알려진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이자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곡가 차이콥스키(1840~1893), 그는 러시아 민족의 고유한 색과 정신을 음악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하지만 근세에 누구도 그의 작품을 이념의 논리로 차용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 클래식 음악계의 세계적인 슈퍼스타,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랑랑(1982~)과 유자왕(Yuja Wang, 1987~)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음악가들이다. 미국 백악관에 초청되어 독주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내한 공연을 했었다. 이들에게 우리는 공산주의자 또는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예술가일 뿐인 것이다.

예술가들은 항상 클리셰(cliche)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데아(idea)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은 객관적 시선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찾는 영적 활동인 것이다. 물론 예술도 사회 속에 존재하는 규정과 제도, 규범(규칙)의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현재를 비판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중국에는 ‘예술’ 그 작품에 메시지를 담아 감동이라는 흔적을 세상에 남긴다. 그래서 예술은 고전이고 역사가 되는 것이다. 즉 예술은 예술일 뿐이다.

社說

우리 경제 위협하는 40조 원 카드론 대출

금융건전성 위한 대책 내놔야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소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급전 창구인 카드론으로 몰려든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카드론 잔액이 늘어난 것은 그 자체보다, 카드론을 쓸 수 밖에 없는 가계의 절실한 상황을 보여주는 우리 경제의 경고등이다. 정부와 정치권, 자치단체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하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 4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2월 39조 4744억 원에 비해 77억 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줄이면서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79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지난달 신용평점이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3억 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은 13곳에 불과했다. 지난달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도 14.44%로 집계됐다.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은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과도하게 카드론에 의존할 경우 더 많은 채무를 누적시켜 국가 전체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와 국가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고금리와 불경기, 소득정체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금융 당국과 은행은 서민들의 금융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가처분소득이 적고, 빚이 많은 가계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카드론 대출만 40조 원에 육박하는 지금, 서민 가계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민생 대책이다. 가계들도 카드론을 이용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부합하는 지 고려해야 한다.

산란·서식지 파괴에 갈곳 잃은 두꺼비떼

섬진강 산란지 축소·변형 심각

광양 섬진강 두꺼비 산란지 훼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두꺼비 서식지 주변에 대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산란지내 습지가 메말라가고 있어서다.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이동 중 ‘로드킬’ 발생도 끊이지 않아 두꺼비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사무소 인근 임야에 715㎡ 규모의 두꺼비 산란 습지가 형성돼 있다. 2년 전 이 인근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우수로가 만들어졌고, 산에서 내려온 물길이 바뀌면서 습지는 급속도로 메마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3월 산란지를 찾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습지 대신 우수관로에 알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수관로의 폭이 깊고 수량이 일정치 않아 알이 메마르거나 새끼가 우수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이 산란지에 알을 낳으러 오는 두꺼비 떼의 움직임조차 관찰되지 않았다.

광양과 경남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은 ‘두꺼비 섬’자를 따와 지어졌다. 광양 진상면, 다압면도 두꺼비와 연관된 지명으로 섬진강 일대는 두꺼비와 인연이 깊다. 광양시 다압면부터 진월면까지 이어지는 섬진강 강줄기에는 두꺼비 산란지 10여 곳이 있었지만 개발 행위 등으로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두꺼비 떼의 산란 시기에 로드킬 마저 잦아지면서 서식지 파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두꺼비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진상면 비평리에 위치한 861년 지방도도가 개발되면서 매년 2~3월에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로드킬(Road kill)을 당하고 있다.

문제는 두꺼비 서식지 훼손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복원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두꺼비 서식지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서식지 훼손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한다. 두꺼비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회귀해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광양은 두꺼비의 대표 서식지인 만큼, 두꺼비를 깃대종으로 지정·보호해 서식지를 복원하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라픽으로 보는 세상



서석대

주당 8달러 짜리 작은 집에 세 들어 사는 지독하게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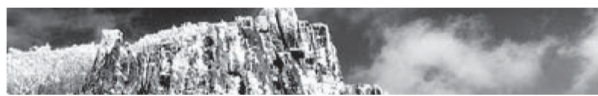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 부모에게 받은 줄이 없는 시계를 팔아 예쁘고 멋진 머리카락을 마련한다. 아내 딸리는 곱고 탐스럽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 판 돈으로 남편에게 선물할 시계줄을 산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받은 부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오 헨리(O. Henry)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가운데 한 대목이다.

늦은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차, 건넌 부는 바람에 어디선가 옥복한 꽃향기가 실려 왔다. 라일락인지, 송어리찌 피어 있는 하얀신스인지 향원은 알 수 없으나 바람과 향기에 흠뻑 잠시 해탈하기로 했다.

이런 날이면 일부러 가는 커피집이 있다. 신접살림을 차린 부부가 하는 동명동 푸른길 기트머리 작은 카페다. 부부는 울드팜을 좋아하는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오래된 노래들을 골잡 들어 놓는다.

그 집으로 가는 길 모퉁이를 돌아들면 으레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웬걸 문 앞에 손글씨로 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며, 그동안 찾아주신 분



들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이다. 장사가 잘 되지않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간혹 했는데 끝내 담은 모양이다. 아쉽고 짝하다. 저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젊은 부부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서니 나 같은 손님들이 꽤 있었는지 안내문 옆에 노란색 메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 용기를 내 다시 시작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글이다. 때로는 손바닥에 쓸만한 몇 줄의 글이 큰 감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어두워지자 길이 그만 내려서라 한다/ 길끝에서 등불을 찾는 마음의 끝/ 길을 닦아 문 앞에서 문 뒤에서 멈춰서라 한다/ 나의 사망은 얼마나 어둡길래 등불 이리 환한가/ 내 그림자 이토록 낯선가/ 등불이 어둠의 그늘로 보이고 내가 어둠의 유일한 빈틈일 때/ 내 몸의 끝에서 떨어지는 파란 독 한 사발/ 몸 속으로 들어온 길이 불의 심지를 한 칸 올리며 말한다/ 함부로 길을 나서 길 너머를 그리워한 죄”

이문재 시인이 펴낸 시집 ‘마음의 오지’에 실린 ‘노독’이라는 시다.

가던 길 어두워 끝내 내려서야만 했던 젊은 부부에게 권면하고 싶다. 사랑하는 그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고 ‘길 너머를 그리워한 죄’를 또 한번 짓기 위해 다시 ‘함부로’ 길을 나설 것을...

최도철 미디어국장

| 全南日報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 |
| |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 |
| www.jnilbo.com m.jnilbo.com |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